

생명나눔본부는 9월 16일부터 20일까지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서 '2026 우즈베키스탄 인도적 지원 및 문화교류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이사장 일면 스님은 "나눔으로 국경을 넘어 마음을 잇고, 희망 인연을 심어 가겠다"고 말했다.

사단법인 생명나눔실천본부 현대불교신문 공동기획

생명나눔으로 물들다

⑦ 우즈베키스탄 글로벌 나눔 프로젝트 모연 권선문

9월 우즈베키스탄서 인도적 지원
고려인 동포에 따뜻한 고국의 마음
취약계층에 치료비·생활용품 전달
"나눔으로 인연 잇고 희망 심는다"

자비는 나와 가까운 사람에게만 베푸는 마음이 아니라 내가 알지 못하는 누군가의 고통까지도 나의 일처럼 여기고 함께 아파하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실천이 되고 실천이 모이면 세상을 조금씩 따뜻하게 변화시키는 힘이 됩니다.

생명나눔실천본부가 국제구호와 나눔의 길에 마음을 내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마음을 모으고자 하는 곳은 중앙아시아의 우즈베키스탄입니다.

우즈베키스탄은 우리에게 낯선 땅이 아닙니다. 그곳에는 오랜 세월 고국을 마음에 품고 살아온 고려인 동포들이 있습니다. 역사의 굴곡 속에서 고향을 떠나야 했던 이들은 낯선 땅에서 삶의 터전을 일구고 가족과 공동체를 지켜왔습니다.

세월은 흘렀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남아 있는 고향의 기억까지 사라진 것은 아닐 것입니다. 한민족이라는 이름조차 멀게 느껴질 만큼 세대가 바뀌었어도 한 마디의 우리말과 한 소절의 노래, 익숙한 음식과 춤 한 자락이 잊고 있던 기억을 다시 불러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우즈베키스탄을 향한 우리의 발걸음은 단순한 해외 지원이 아니었으면 합니다. 잊지 않고 찾아가는 마음, 멀리 있어도 함께하고 있다는 마음, 당신의 삶과 이야기를 소중하게 여기고 있다는 마음을 전하는 여정이 됐으면 합니다.

특히 그곳에는 우리의 도움이 절실한 이웃들이 있습니다. 병으로 고통받으면서도 치료의 기회를 충분히 얻지 못하는 이들이 있고 장애와 어려움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후원금과 물품이 그 모든 어려움을 한꺼번에 없앨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 사람의 치료를 돕고 한 아이의 하루를 조금 더 편안하게 만들고 한 가정의 걱정을 조금이나마 덜어주는 일은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나눔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여정에서 우리는 후원이 한 번의 지원으로 머무르지 않고 현지 이웃들과 신뢰를 쌓고 서로의 삶을 이해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눔을 통해 만나고, 만남을 통해 마음을 나누며, 그렇게 쌓인 인연이 또 다른 나눔으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저는 특히 '문화'가 가진 힘을 믿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아도 음악은 마음을 움직이고, 서로 다른 역사를 살아왔어도 아름다운 춤을 함께 바라보며 미소 지을 수 있습니다. 한국의 전통문화와 아리랑을 통해 고려인 어르신들에게는 고향의 기억을 되살리는 따뜻한 시간이, 현지인들에게는 한국을 새롭게 만나는 소중한 시간이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우즈베키스탄 아이들.

나눔이 삶을 살피는 일이라면 문화는 마음을 잇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가 함께할 때 우리는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를 넘어 서로의 삶을 존중하고 이해하는 관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나눔은 일방적인 베풂이 아니라 서로의 삶을 존중하는 일이어야 합니다. 도움을 주는 사람과 도움을 받는 사람을 구분하기보다 오늘은 내가 손을 내밀고 내일은 또 다른 누군가가 나에게 손을 내미는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일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후원자 여러분의 마음이 더욱 소중합니다. 여러분께서 보내주시는 정성은 누군가에게는 치료의 기회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필요한 생활의 버팀목이 되며, 또 누군가에게는 '우리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위로가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그 마음은 국경을 넘어 전달되는 자비의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한 사람의 정성이 모이고, 열 사람의 마음이 모이고, 수많은 이들의 원력이 하나로 모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큰 힘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생명나눔실천본부가 지금까지 걸어온 길 역시 그러한 인연의 힘으로 가능했습니다. 누군가의 아픔을 지나치지 않고 마음을 내어주신 분들, 이름 없이 정성을 보태주신 분들, 어려운 이웃을 위해 자신의 것을 기꺼이 나누어주신 모든 후원자님들이 계셨기에 오늘의 생명나눔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우즈베키스탄의 인연 또한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중요한 것은 크기가 아니라 마음을 내는 일입니다.

그 마음들이 모여 한 생명을 살리고, 한 아이에게 희망을 주며 한 어르신의 외로움을 덜어드릴 수 있습니다.

이번 우즈베키스탄의 길에 마음을 함께해 주십시오. 우리의 나눔이 한 번의 후원으로 끝나지 않고 오래 이어지는 인연이 되도록, 우리의 자비가 국경을 넘어 더 넓은 세상으로 퍼져나갈 수 있도록 원력을 모아주십시오. 여러분의 정성 하나하나가 소중한 인연의 씨앗이 될 것입니다. 그 씨앗이 우즈베키스탄의 땅에 뿌려져 희망의 싹을 틔우고 언젠가 다시 큰 나무가 돼 더 많은 이들에게 그늘과 쉼을 내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디 이번 우즈베키스탄 글로벌 나눔 프로젝트에 원력을 함께 모아 주시기를 간곡히 발원합니다. 여러분의 귀한 마음이 가장 필요한 곳에 정성껏 전해지도록 생명나눔실천본부도 한 걸음 한 걸음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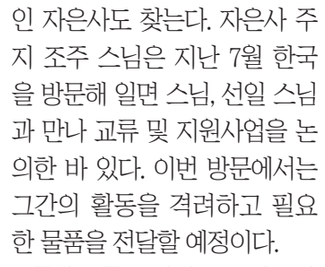
후원 문의 02-734-8059

후원계좌 농협 053-01-271485

나눔으로 국경 넘고 아리랑으로 마음 잇는다

9월 16~20일, 우즈베키스탄서 인도적 지원 · 문화교류

치료비·장애아동 용품 지원
고려인 만나 한국 전통 공연



지난 7월 불암사서 만난 조주 스님, 일면 스님, 선일 스님(왼쪽부터).

2024년부터 국제구호에 힘을 쏟아온 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일면 스님)가 오는 9월 우즈베키스탄으로 향한다. 물품만 전달하고 돌아오는 해외구호가 아니다.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전하고 고려인 동포들과 만나며 한국의 전통문화를 현지에 소개한다. 나눔과 문화교류를 통해 새로운 인연을 만들고 지속적인 관계로 이어가기 위한 여정이다.

생명나눔실천본부는 9월 16일부터 20일까지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서 '2026 우즈베키스탄 인도적 지원 및 문화교류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이번 사업에는 이사장 일면 스님을 비롯해 명신 스님, 혜성 스님, 선일 스님 등 스님들과 마하무용단 등 약 25명이 참여한다. 방문단은 주한 우즈베키스탄 대사관과 우즈베키스탄 국가사회보호청(NASP)의 협력을 바탕으로 현지 사회복지기관과 아동보호시설, 고려인 요양시설 등을 찾아 지원 활동을 펼친다. 또 한국 전통문화 공연을 통해 현지 시민들과도 교류의 폭을 넓힌다. 나눔과 문화를 별개로 보지 않고 함께 엮어가는 것이 이번 프로젝트의 방향이다.

9월 17일에는 국가사회보호청을 찾아 사회복지 및 취약계층 지원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또 취약계층 환자의 치료를 돕기 위한 약 7000달러 규모의 치료비 지원금 전달식을 진행한다. 2023년 설립된 국가사회보호청은 장애인·독거노인·보호아동 등을 위한 사회서비스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생명나눔실천본부는 이번 방문을 계기로 일회성 지원을 넘어 지속적인 협력 가능성을 모색한다.

9월 18일에는 장애아동재활센터와 아동보호시설을 방문해 현장의 어려움을 듣고 의약품·의료용품·생필품·아동 속옷과 의류·학용품 등을 전달한다. 현지 수요를 사전에 파악해 실제 사용될 물품을 준비한 것이 특징이다.

같은 날 오후에는 2010년 설립된 아리랑요양원을 찾아 고려인 어르신들을 만난다. 1937년 강제 이주를 겪은 고려인들이 낯선 땅에서 이어온 언어와 문화, 삶의 기억을 함께 나누는 자리다. 방문단은 의약품과 생활용품을 전달하고 어르신들의 안부를 묻는다. 마하무용단의 한국 전통무용 공연도 함께 펼쳐진다.

방문단은 조계종 해외 사찰인 자은사도 찾는다. 자은사 주지 조주 스님은 지난 7월 한국을 방문해 일면 스님, 선일 스님과 만나 교류 및 지원사업을 논의한 바 있다. 이번 방문에서는 그간의 활동을 격려하고 필요한 물품을 전달할 예정이다.

문화교류도 이번 프로젝트의 중요한 축이다. 마하무용단은 타슈켄트 시민들의 왕래가 많은 광장이나 문화공간에서 태극부채를 활용한 퓨전국악 '아리랑'과 전통무용, 궁중무용, 창작무용 등을 선보이며 한국 문화를 자연스럽게 알릴 계획이다.

일면 스님은 "이번 프로젝트는 물질적 지원을 전하는 동시에 그 사회와 직접 만나고 문화를 나누며 지속가능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라며 "한국불교와 전통문화라는 매개가 더해지면 단순한 해외봉사를 넘어선 새로운 교류의 가능성이 열릴 것"이라고 기대했다.

임은호 기자

